

목어 나는 어떤 불자인가



어느 절에서 법회를 볼 때의 이야기다. 모인 대중은 대부분이 노보살님들이었다. 거사님이 두 분. 청소년은 한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절에 30년 이상 다닌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신도들이 손을 들었다.

10년이상 신성한 분들을 물어보니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다. 이어서 심보가 무엇인지 아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한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비단 이 절만의 실정인 아니라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이런 절이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국내 사찰 가운데 절반은 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반드시 불교적 상식이 있어야만 불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교는 맹목적 신앙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합리적 이해와 그에 따르는 실천을 결집해야만 불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는 종교인 것이다.

불자는 모름지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목어 염주를 두르고 불자의 티를 화려하게 드러낸다고 해도 올바른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불자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불자란 이름을 걸고 부처님의 뜻을 거슬러가까지 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부처님을 속되게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도 탐욕과 교만, 맹목적 신앙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는 명색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불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불자인가. 필자는 여기서 자기자신을 어떤 불자인가 돌아볼 것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는 진실로 신심이 든든한가? 나는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얼마나 닦고 있는가? 나는 보살 정신을 이웃에게 펴고 있는가? 나는 전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불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불교의 내일은 밝아질 것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나는 진실로 신심이 든든한가?
나는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얼마나 닦고 있는가?
나는 보살 정신을 이웃에게 펴고 있는가?
나는 전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불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불교의 내일은 밝아질 것이다.

불자의 생각



해당 경찰등 문책해야 75%

너무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한 사건이 원인이 있다고 답한 불자는 27명(36%)이었다. 종교의 신성성을 경시하는 공권력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20명(27%),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이 저하된 점을 탓한 불자도 23명(31%)이나 됐다. 또 응답자의 75%에 해당하는 55명이 경찰과 종단에서 문책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면태기자

“‘물쓰듯’ 옛말...한방울도 아껴야”

불자 세상보기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인류는 진작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도록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삼라만상이 내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펼쳐놓은 것이 우주이며 두두물물이 나의 연장선에 있다. 난생(難生)이든 승생(衆生)이든 모든 생명의 바탕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흙과 물과 공기는 생명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이탈할 무공무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오묘함이다. 따라서 흔하지 않은 흙과 물과 공기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돈급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중생이 참으로 어려워서 소중한 것은

천하게 여기고, 필요없는 것을 오히려 애지중지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공기가 없으면 3분 살기도 힘들고 물 없으면 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물과 공기는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니 어려서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사람이 육식을 포함해서 영양 섭취를 위한 식량생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1년에 약 1천 700톤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사용가능량이 1천톤 이하면 물부족국가로 분류하는 데 우리나라는 벨기에 케냐 모로코 폴란드 르완다 소말리아 남아공과 함께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간으로 따지면 세계 평균 1.3배(1.274m)인데 우

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물의 이용관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강수량이 6-8월 3개월에 집중돼 있고 경사가 심해 빠른 속도로 3면의 바다로 유입돼 버리는 지형적 특성, 그리고 하천과 땅의 이용관리의 허점도 있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시민의식이 가능하는 척도가 됐다. 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시민의식이 뒤떨어진다는 말이다. 인구 60억 돌파 후 물부족은 식량, 에너지와 함께 지구촌의 새로운 고안으로 등장해 우리나라도 20년 후면 물기근 국가가 된다. 아울러 각국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 물기근이 올 것에 대비 공급 대책을 세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래서 지각있는 사람은 물을 물 쓰듯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샤워할 때 물을 잠그고 비누칠을 하면 30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그것도 30원 아끼자고 샤워 꼭지 잠갔다 컸다 하기가 귀찮게 생각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각 가정의 수도요금 몇백원 아니 몇천원 더 내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그 물을 공급하느라 들어가는 비용과 소비된 생활수처리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인 것이다. 가정에서 습관을 바꿈으로써 절약



할 수 있는 물을 수도요금으로 환산해 보자. 세면을 받아서 하면 10원, 기름기 묻은 그릇 화장지로 먼저 닦으면 40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100만 가구가 이것을 실천해 가구당 연간 만원을 절약한다고 치자. 그 1만원은 별 것 아니지만 절약된 물의 양은 1천 800만 톤으로 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정수장 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처리비용이 1천200여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주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은 또 달라진다.

항금을 우습게 일면 복을 받지만 물을 우습게 알면 재앙이 온다. 반대로 항금을 좋아하면 재앙이 오고 물 한방울을 귀한 줄 아는 삶에는 복이 깃든다.

본지(本報)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불교시민운동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불교NGO 단체들간 연대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드라생명공동체, 경불연, 불교환경교육원 등 10개 단체들은 22-23일 서울 관문사에서 다양성의 시대, 불교운동의 성

시민운동으로 정착 안돼

서동석(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80년대 이후 불교시민운동의 출발은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 법난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80년대 불교시민운동의 목표는 사회 민주화와 종교적 자유 회복에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여래사운동', '몽불합' 활동 등 민중불교운동을 전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90년 불교인권위 출범, 91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92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등을 통해 불교계는 94·95년을 겪으면서 중산 자정 등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인력 양성·이념 확립을

90년 중반 이후의 불교시민운동은 나름의 전문성을 지닌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 및 조선족 동포 후원, 후진국 기아 구호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소비자운동, 환경보호 운동 등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1세기 불교시민운동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법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 양성 과 이념확립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불교시민사회의 운동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더없이 높일 수 있다.

열린마당

불교운동...성찰과 전망

연기적 사고 생명운동 근거

윤형근(한살림 교육담당)



최근 들어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대두함에 따라 사회운동은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은 생명운동으로 변화했다.

불교적인 삶과 가르침은 생명운동의 이론적, 사상적 배경이 된다. 세계를 생명의 그물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 우주의 관계를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동양적 가치관의 생태적 사유는 생명운동의 중요

나눔 통해 공동체적 삶 구현

한 근거이다. 연기적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전면적 변화나 각성, 깨달음 등과 우주적 삶·생태적 삶·사회적 삶이 통일된 최근 대두한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생명운동이 추구하는 바다. 또한 생명운동은 나눔과 협동, 공유 등을 통해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생명력의 회복은 생명운동의 지향일 것이다. 또한 생명운동은 환경 생태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회복,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 회복을 이뤄야 할 것이다.

깨달음 운동으로 승화돼야

조연현(한겨레신문 기자)



사회운동은 활을 떠난 화살과 같이 관성에 의해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승간 삶과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 혼동될 만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평화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 폭력적일 수 있고, 환경운동을 한다면서 스스로는 반생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운동 역시 힘으로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에 올 고통과 갈등마저도 뿌리 뽑기 위한 깨달음의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만이 아니라 운동 과정의 전체가 어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불교 종파적 이기심 극복을

불교운동의 동력은 대중적인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운동의 에너지는 수행을 통해 나오는 자비의 에너지여야 할 것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교의 종파적 이기심을 내세워서는 모든 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적 이기심이 우선 극복돼야 한다. 불교 깨달음의 궁극인 '평등지'는 불교적 이기심을 극복할 단초를 준다. '나', '내 지역', '내 편', '내 종교'의 아집을 벗어나 일체에 대해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대승 보살은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일치를 위한 중요한 모델이다.

Advertisement for 'Korea Buddha' (코리아부다) featuring 'Snow Mountain White Jade Buddha' (雪山白玉佛). The ad includes a large image of a Buddha statue, a smaller image of a person writing, and a list of products. Text includes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and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